

# 한성이 서울에게



## 제2회 비룡소 역사동화상 대상 수상작

가족, 추리, 심령, 범죄, 역사동화 고유의 의미와

독특한 재미를 모두 갖춘 작품 | 심사평 중에서 (김남중, 김영진)



이현지 글 · 김규택 그림

비룡소 '일공일삼' 독서 활동 워크북  
#한성이 서울에게 #역사 #가족 #우정 #사랑

 책의 앞, 뒤표지를 꼼꼼히 살핀 후 아래 물음에 답해 봅시다.

Q. 책의 표지를 살피며 궁금한 점이 있었나요? 책에 대해 떠오르는 질문을 자유롭게 적어 봅시다.


(예) 책 앞 표지에 나온 것은 누구일까?

Q. '한성' 또는 '백제'에 대해 아는 것이 있나요? 책을 읽기 전에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자유롭게 적어 볼까요?

 책을 펼쳐 '차례'를 꼼꼼히 살핀 후 아래 물음에 답해 봅시다.

Q. 이 책은 총 몇 개의 차례로 이루어졌나요? 아래 칸에 차례를 따라 쓰며 각 장의 내용을 예상해 봅시다.

Q. 차례 중에서 내용이 가장 궁금한 장을 하나 골라 제목을 쓰고, 그 장의 내용을 간단히 추측하여 봅시다.

 '한성이 서울에게' 1장을 읽고, 아래 물음에 답해 봅시다.

Q1. 1장에 나온 주요 등장 인물과 짐작되는 성격을 정리해 봅시다.



나

Blank area for writing the personality of '나' (I)



성이

Blank area for writing the personality of '성이' (Seong-i)



할머니

Blank area for writing the personality of '할머니' (Grandmother)



엄마

Blank area for writing the personality of '엄마' (Mother)

※ 인물의 이름 위 빈 원에는 인물들의 얼굴도 그려 봅시다.

Q2. 주인공인 '나'의 가족에게는 어떤 비극적인 일이 있었나요?

Blank area for writing the tragic event that happened to the main character's family

Q3. '성이'가 우리 집에 나타난 까닭은 무엇일까요? 간단히 상상하여 적어 봅시다.

Blank area for writing the reason why 'Seong-i' appeared in the house, based on imagination



'한성이 서울에게' 2장을 읽고, 아래 물음에 답해 봅시다.

Q1. 우리 동네의 이름은 무엇이고, 특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Blank space for writing the answer to Q1.

Q2. 우리 동네의 옛날 모습과 오늘날 모습 중 더욱 생생하게 떠오르는 모습을 한 가지만 골라 그림으로 표현해 봅시다.

Blank space for drawing the answer to Q2.

 '한성이 서울에게' 3장을 읽고, 아래 물음에 답해 봅시다.

Q1. 한밤중 공사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나요?

Q2. 공사장에서 일어난 상황을 목격한 뒤, 울이는 어떤 대처를 했나요?

Q3. 다음은 책 34쪽의 내용 일부입니다.

(중략) "왜? 돈이 뭐 어때서." 돈은 중요하다. 사람들은 모두 그걸 알면서도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우리 오빠처럼. 오빠는 늘 돈보다 가치가 중요하다고 했다. (후략)

돈과 가치 중 하나만 택해야 한다면 나는 무엇을 택할까요? 또 그런 선택을 한 까닭은 무엇인지 아래에 나의 주장과 근거를 정리해 봅시다.

나는 ( 돈 / 가치 )보다 ( 돈 / 가치 )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한성이 서울에게' 4장을 읽고, 아래 물음에 답해 봅시다.

Q1. 성이가 느꼈던 '신묘한 재물의 기운'의 정체는 무엇이었나요?

성이가 예상했던 것과 실제 땅 속에서 나온 것의 정체를 각각 적어 봅시다.

성이가 예상했던 것	
실제로 땅 속에서 나온 것	

Q2. 구슬을 발견했을 때 울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또 오빠의 방문을 연 후,

울이는 어떤 행동을 할까요? 다음 장에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은지

'오빠'와 '구슬'이라는 낱말을 활용하여 뒷 이야기를 예상하여 봅시다.



'한성이 서울에게' 5장을 읽고, 아래 물음에 답해 봅시다.

Q1. '돌방무덤'은 무엇인가요? 책 57쪽을 참고하여 '돌방무덤'의 뜻을 찾아 써 봅시다.

Q2. 울이는 왜 오빠의 방이 돌방무덤 같다고 생각했을까요?

Q3. 다음은 책 65쪽의 내용 일부입니다.

(중략) 사랑이 가장 힘이 세다던 오빠의 말은 틀렸다. 아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지구까지 사랑했던 오빠의 마음은 아무런 힘이 없었다. 오빠는 조금 덜 사랑했어야 했다. 아이를 구하러 뛰어들기 전에 멈칫했어야 했다. 자기 목숨조차 구하지 못한 바보 같은 사랑을 한 줌의 재로 남기고 오빠는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났다. (후략)

사랑에 적당한 선이 있을까요? 사랑에 대한 나의 생각은 울이와 오빠 중 누구의 생각에 더 가까운지, 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적어 봅시다.





'한성이 서울에게' 6장을 읽고, 아래 물음에 답해 봅시다.

Q1. '영혼결혼식'은 무엇인가요?

Q2. 성이의 영혼은 어디에 갇들어 있었나요? 또 성이가 울이네 가족의 이사를 바랄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무엇이었나요?

Q3. 계속해서 영혼결혼식을 주장하는 할머니를 막아선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또 나라면 어떤 방법을 떠올렸을까요? 자유롭게 상상하여 적어 봅시다.



'한성이 서울에게' 7장을 읽고, 아래 물음에 답해 봅시다.

Q1. '똑같은 냄새'란 무엇을 의미했나요?

Q2. 다음은 책 82쪽의 내용 일부입니다.

(중략) "엄마의 하나밖에 없는 귀고리였는데. 곧 동생도 태어날 거였는데. 이거 팔면 겨울 한 철 식량은 너끈했는데. 근데 엄마는 이걸 내 무덤에 넣어 줬어. 저승 가서 쓰라고." 성이가 손으로 눈가를 닦았다. 진짜 눈물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못 본 척 고개를 돌렸다.

"네가 우리 엄마 마음을 알아? 부자도 아니면서 이걸 무덤에 넣어주는 마음을 아냐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사랑했던 마음까지도 죄다 흙먼지가 되는 줄 아니?"(후략)

사랑에 유효기간이 있을까요? '영원한 사랑'은 존재할까요? 나의 생각과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적어 봅시다.

 '한성이 서울에게' 8장을 읽고, 아래 물음에 답해 봅시다.

Q1. 아줌마, 할아버지, 금니의 정체는 무엇이었나요?

Q2. 오빠 방에서 없어진 물건은 무엇이고, 그 물건을 가져간 사람은 누구였나요?

Q3. 울이가 금니의 제안에 동의하게 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울이의 생각을 짐작해 보고, 뒤에 이어질 이야기를 상상하여 적어 봅시다.



'한성이 서울에게' 9장을 읽고, 아래 물음에 답해 봅시다.

Q1. 성이의 마지막 기억 속에서 성이와 가족들은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Q2. 내가 도굴꾼들과 손을 잡기로 한 표면적인 이유와 진짜 이유는 각각 무엇이었나요?

표면적 이유	진짜 이유

Q3. 다음은 책 116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못난 생각이라는 거 안다. 나쁜 아이라고 해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기필코 오빠보다 더 낫다는 소리를 듣고야 말 거다.*

울이가 오빠보다 낫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한성이 서울에게' 10장을 읽고, 아래 물음에 답해 봅시다.

Q1. 책에 나온 내용과 인터넷, 책 등의 추가 정보를 활용하여 '굴식 돌방무덤'을 설명하는 글을 써 봅시다.

< 굴식 돌방무덤 >

Q2. 휴대전화를 뺏기며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게 된 울이. 내가 울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갈까요?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 봅시다.

 '한성이 서울에게' 11장을 읽고, 아래 물음에 답해 봅시다.

Q. 이번 장에서 가장 인상 깊은 쪽을 하나만 골라 봅시다. 내용을 똑같이 옮겨 적고 (필사), 어울리는 그림을 그려 책 디자이너가 되어 봅시다.





'한성이 서울에게' 12장을 읽고, 아래 물음에 답해 봅시다.

Q1. 혼자 도굴을 하다 어려움을 마주한 금니, 금니는 어떤 해결책을 떠올렸나요?

Q2. 금니가 판 구멍 안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Q3. 다음은 책 150쪽의 일부입니다.

금니는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돈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마음에 대해서 생각했다. 겨울이 다가오는데도 자식의 무덤에 금귀고리를 넣는 마음에 대해서. 곧 무너질 집에서 살면서도 보험금은 한 푼도 쓰지 않는 마음에 대해서. 그런 마음들을 앞에 두고선 누구도 돈이 최고라 말할 수 없었다.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돈이라는 금니의 말에 대한 내 생각을 적어 봅시다.  
내가 생각하기에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한성이 서울에게' 13장을 읽고, 아래 물음에 답해 봅시다.

Q1. 내가 성이를 좋아했던 까닭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나요? 책 162쪽을 참고하여 적어봅시다. 또 책에 나오지 않았지만, 내가 성이를 좋아했던 다른 이유가 더 있을지 내 생각을 더하여 적어 봅시다.

Q2. 성이가 되어 울이에게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써 봅시다.







'한성이 서울에게' 14장을 읽고, 아래 물음에 답해 봅시다.

Q1. 엄마와 할머니가 말한 '울이가 준 기회'는 무엇을 의미했나요?

Q2. 다음은 178쪽 내용 일부입니다.

"정말이야? 내가 오빠만큼 착하지 않아도? 엄마는 맨날 오빠가 특별하다고 그랬잖아. 난 특별하지 않은데. 오빠가 해님이면 나는 그냥 바람인데. 그래도 괜찮아?"

울이가 오빠보다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관련 경험을 떠올리며, 나의 생각을 적어 봅시다.

Q3. 우리 속담 중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울이의 엄마는 정말 울이와 울이를 똑같이 사랑했을까요? '사랑'이 무엇인지 고민해 본 후, 나의 생각을 적어 봅시다.



'한성이 서울에게' 15장을 읽고, 아래 물음에 답해 봅시다.

Q1. 울이네 집이 있었던 곳은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나요?

Q2. 다음은 191쪽 내용 일부입니다.

돌방무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모든 물건은 유품이 되고 사랑받은 유품은 유물이 된다. 먼 미래의 누군가는 그 사랑의 흔적을 통해 역사를 읽을 것이다. 무덤에 묻혀도 마음은 살아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천 년 후 후손들이 나의 물건을 통해 읽어주었으면 하는 역사가 있나요? 어떤 물건이 나의 유물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밝히고, 그 물건에 얽힌 나의 일화를 적어 봅시다.



'한성이 서울에게'의 주제를 바탕으로 논설문을 써 봅시다.

- Q. '한성이 서울에게'는 성이와 올이가 주인공인 역사 이야기 책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역사가 꼭 오래되고 고리타분한 것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와 같이 평범했던 옛 사람들의 삶의 흔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주제 중 하나를 골라, 나의 의견을 밝히는 논설문을 완성해 봅시다.

주제 1. <유물을 개인 혹은 단체가 금전으로 거래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옳은가?>  
주제 2. <옛 사람들이 남긴 흔적은 모두 유물이 될 수 있는가?>

Blank area for writing the opinion essay.